아버지의 부성경험: 다양한 역할수행의 긴장과 갈등

양소남*

Men's fathering experiences focused on tensions and conflict of multiple roles

Sonam Yang*

요 약 본 연구는 기혼 유자녀 맞벌이 남성의 부성역할 수행 경험을 탐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과 문서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맞벌이 아버지 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분석적 귀납에 근거한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아버지 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역할 수행의 불일치, 생계부양자와 돌봄 제공자 역할 수행으로 인한 긴장, 그리고 자녀에 대한 헌신과 직업적 성취욕구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점진적으로 가족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소외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토대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과 함께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접근과 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아버지 역할, 부성, 역할갈등, 가족생활 참여, 가족 돌봄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thers' own expectations and experiences of fatherhood along with their views of what it meant to be a 'good' father. Qualitative methodologies were use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10 dual-earner fathers with young children. Interviewees overwhelmingly welcomed the opportunities offered to them by the new fatherhood model and supported a perceived cultural shift towards men and fathers being involved in, rather than detached from, family life. However tension and difficulty in living the ideal were also reported: gaps between perceptions and behaviors; struggle for traditional breadwinning role and caring; conflicts between selflessness and career and uninvolved in family decisions. Poli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a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future research are identified.

Key Words : Fathering, Fatherhood, role conflicts, parental involvement, family care

1. 서론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고[24], 특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근대적 성별 노동분업에 대한 태도가 유연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맞벌이가구 남편의 가정관리 시간(24분)과 맞벌이가구 아내의 가정관리 시간(2시간 38분)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 생활시간조사 결과는[23]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을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즉, 이러한 태도의 유연성이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일과 가족 간의 긴장 및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결국 출산율 저하와 육아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나 학계에서는 가족 내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한국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이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성이 노동자와 어머니로서 경험하

*본 연구는 2010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논문접수: 2013년 2월 1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2월 20일, 확정일: 2013년 2월 20일

는 이중부담 해소에 집중되어 있기에 성별 분업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아버지 역할을 둘러싼 가족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돌봄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남성이 가사 및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이 직장과 가정이라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수행되어 왔고,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서구의 경우, 1950년대 후반부터 가족과 자녀를 위해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기대가 표출되면서, 이러한 조사연구의 패턴이 변화되기 시작한다[35].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남성의 정체감과 삶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34], 이로 인해 남성들로부터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미부여와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구체적인 아버지의 역할 등이 새롭게 규정되어 왔다[41][40]. 이후 새로운 아버지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27], 아버지들이 여전히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신생아 수유, 기저귀 갈아주기와 같은 일상적인 양육에 참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다[31][48][49]. 그러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적절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었고[44][33] 최근에는 아버지의 의미와 역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되었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37][30][40][36]. 아동행동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족생활에 참여하는 남성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남성의 자녀보다 치료효과가 지속된다는 연구결과는[26] 이러한 아버지 역할의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이 아버지들 모두가 가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자녀의 돌보미로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돌보미로서 아버지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는 하나의 긍정적 이미지로서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유모차를 끌며,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축구를 하는 다정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영화나 광고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버지들의 변화는 새로운 부성(new fatherhood)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현대 아버지들의 생활세계와 부성,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각본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의제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27].

국내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로 인한 자녀의 변화나 아버지의 역할참여 만족도 등과 같은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14][16][17][25][9][4], 2000년대를 기점으로 부성(fatherhood)이나 아버지 됨의 의미 또는 아버지의 (가족 내) 역할(father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와 학계의 관심이 본격화 되면서 아버지의 다양한 역할, 즉 생계부양자로부터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를 능동적으로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8][5][21].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의 육아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고민이 시작되면서 아버지의 자녀 돌봄과 적절한 역할수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5][22][15].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과거의 부모세대와 달리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다양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7].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부성경험에 대한 연구나 아버지의 가족 내 역할 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을 주 대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1][18][19], 최근 들어 남성의 육아휴직 수용 태도나 이용 가능성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나 양적연구에 의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11][13].

남성의 가족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다양한 역할수행 경험을 부양권과 노동권의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부성경험과 다양한 역할수행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아버지들의 실제적인 가족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은 무엇이며, 노동시장과 가사노동 그리고 육아에 참여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복잡한 현상에 보다 친숙해 지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서로 다른 모습과 특성을 지닌 사회현상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32][52].

2.1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표본추출을 위한 충분함이 요구되는데[46][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도적(purposive)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첫째,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이고, 둘째, 스스로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이다. '적극적인 참여'의 기준은 참여자 개인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셋째,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최종적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10명의 아버지들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의 특성을 요약하여 기술하자면, 연령은 3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약 1.4명으로 10개월에서 15세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가지고 있다. 참여자들은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남성이 5명이었고, 사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5명이었다. 이들 모두 대졸 이상으로 직업은 사무직이나 공무원, 교사 등 다양했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참여자	연령	자녀연령	직업	배우자 직업
A	30대	7세	사기업 사원	교사
B	30대	5세, 6세	사기업 사원	사기업 사원
C	30대	4세	사기업 사원	사기업 사원
D	30대	13개월	교사	사기업 사원
E	30대	1세, 4세	공기업 사원	공기업 사원
F	40대	4세, 6세	사기업 사원	공무원
G	40대	11세	사기업 사원	사기업 사원
H	40대	10개월	공기업 사원	사기업 사원
I	40대	9세, 15세	공기업 사원	공기업 사원
J	40대	13세	공기웝 사원	공무원

2.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층면접과 문서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반 구조화된 면접지침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전 면접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면접시간은 평균 90분에서 120분이 소요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부성경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면접을 종료하였다[28]. 모든 면접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참여자의 부성 인식이나 실천을 파악할 수 있는 육아일기 등과 같은 문서들을 수집하여 면접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자료수집 방법의 다원화와[51] 분석과정에서 텍스트를 연구 참여자 일부와 공유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ing)과정을 거쳤고[3][43], 이러한 노력은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사료된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분석(analytic induction)에 근거한 지속적 비교분석방법(constant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52][50]. 개별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들을 각 주제별로 분류·배치하는 것이 분석의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영역의 내용들을 일정한 틀과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일종의 분류분석 단계를 거쳤다. 두 번째 분석 단계부터 시작된 글쓰기는 연구자의 사고를 정련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자료와 글쓰기 사이를 오가면서 미처 놓쳤거나 의문이 드는 내용은 계속되는 관찰과 면접 등을 통해 확보하여 나갔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범주들 사이의 맥락과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핵심범주를 찾고, 마지막으로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들을 구체화하기위해 유의미한 자료를 추려내는 자료 축소를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비슷한 맥락까지 묶어가는 주제별 분석을 통해 주요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면담 및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가 녹음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면담 녹취록은 연구목적 외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과 고유한 개인신상 정보에 대한 익명성 보장 등을 약속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결과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과 실제적인 역할수행 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오가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점차 가족 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 생계부양과 돌봄제공 역할의 긴장, 헌신과 직업적 성취욕구 간의 갈등, 그리고 가족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소외라는 주제를 통해 분석되었다.

3.1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괴리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아버지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 자녀의 성장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라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아버지들이 과거 세대의 아버지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족 중심적인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람직한 아버지상과 현실에서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엄했어요. 뭐 옛날 분들이 다 그랬지만... 그래서 나는 애들도 잘 챙겨주고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지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여건상 쉽지 않잖아요. 워낙 회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애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G씨)

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추세처럼... 왜 그 친구 같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그런데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빠로 애들 뒷바라지 하다보면 사실 애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진 않고 또 집에 같이 있어도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냥 각자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있게 되더라구 (I씨)

이와 같이 아버지가 인식하고 있는 이상적인 아버지상과 이들의 실제 모습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시간부족이나[6][45] 부모역할 만족도의 차이[12][8][4] 그리고 직업의식의 차이[42]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의 사례는 아버지들의 절대적인 시간부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3.2 생계부양과 돌봄제공 역할의 긴장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직장에서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이면서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생활에서 기쁨을 얻고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내를 도와주는 일'이 아닌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을 자신들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것이다.

집사람은 회사원이고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집사람이 7시에 출근하고 나면 제가 애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서 8시까지 애하고 있다가 이모님[아이돌보미] 오시면 이제 맡기고 출근하죠. 그리고 제가 6시 30분 정도에 집에 와서 이모님하고 교대해서 저녁 해 놓고 애 보면서 집안 정리하다보면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집사람이 옵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이만 바라보면 너무 행복하죠 (D씨)

하지만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가 가운데 가장 길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47]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에서 보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남성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여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23][24]. 연구 참여자들은 아버지 역할에 대해 생계부양은 기본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참여자들의 역할은 생계부양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이들은 상당한 긴장을 경험하고 있었고 동시에 자녀의 성장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나는 경제적으로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않게 능력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동시에 집사람이나 애들한테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둘이 같이 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아요. 애들도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애들이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는 건 솔직히 안타깝죠 (F씨)

사실 일과 가족은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영역이며[29]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성취하는 것은 복잡한 이슈이다[38]. 특히 남성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여전히 가족 내 역할보다는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갈등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참여자 중 한 명의 아버지만이 보수적인 성역할의식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생계부양자이므로 자녀 양육은 아내의 역할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참여자 A에게 있어 좋은 아버지란 가족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이며, 여기에서 책임감이란 생계를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단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뭐 남자보다 여자가 원래 애를 잘 기르잖아요. 남자는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을 책임지면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꾸준히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니까 새벽에 운동가고 퇴근 후에 중국어학원 다니고 그럽니다. 그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니까 (A씨)

위의 사례는 일 중심적인 아버지의 경험을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자녀돌봄과 같은 가족생활에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아버지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과 남성들 스스로의 변화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노동 중심적인 근로환경과 문화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예이고, 이것이 아버지들에게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3 헌신과 직업적 성취욕구 간의 갈등

영유아 자녀가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자녀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아버지들은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어떤 역할수행에 보다 우선권을 둘지 선택하게 된다. 육아를 포함한 가족생활에 충분한 참여를 원하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직장의 분위기와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아이를 [직장어린이집에] 데리고 다니는데 야근이 있어서 언젠가 몇 번 8시에 데리러 갔더니 우리 애만 덩그라니 남아있는거예요. 맘이 어찌나 좋지 않던지...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과장님께 앞으로 매일 6시에 칼퇴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곤 지금까지 계속 6시면 칼퇴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야근이 필요한 날은 집에 애를 데려다 놓고 다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는데 친한 부장님이 술한잔 하자고 하더니 우리 부장님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애를 저 혼자 키우냐고 뭐라고 했다는거예요. 매일 애 핑계대고 칼퇴근 한다 이거죠. 근데 이건 핑계가 아니잖아요 (C씨)

또한 다양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직업적 성취욕구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승진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뭔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집안일이나 애 보는 거를 같이 해야 하는데... 애 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때론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데 내 가족은... 내가 내 커리어에 집중하다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G씨)

아버지들 대부분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자녀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삶 또한 자녀 중심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지만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직업적 성취욕구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편하지만은 않다는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흥

미로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 자녀 출산 전에는 자녀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삶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서 자녀 출생 이후 서서히 그런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애가 있기 전까진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을 자꾸 줄이게 되요. 그냥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있는게 좋아요. 친구들은 제가 변했다고 뭐라 하기도 하는데 제겐 지금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H씨)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 자신들이 우선시하는 과업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시기에는 가족생활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 자신의 커리어 개발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에 어린 아이가 둘이나 있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 우리 부부만의 몫인데 지금은 우리 둘 다 육아가 가장 중요한 이슈죠. 같이 올인 해야죠. 물론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도 대비하고 해야 승진도 해야 하고 하지만 당분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승진은 생각안하기로 했어요... 아내도 같은 상황이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걸 우린 알고 있죠 (B씨)

애가 어릴 때는 애 보는 게 엄청 힘들었었죠. 둘 다 맨날 헉헉대고 그래서 다른 건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좀 크니까 우리 둘 다 승진준비도 하고 회사 일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럴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되었죠 (J씨)

젊은 아버지들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참여의지는 높으나 직장에서의 업무몰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다원화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4 가족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아버지들은 자녀의 성장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구체적인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공유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자녀성장 과정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고 그래서 더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가족의 일상에서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간혹 일찍 들어갈 때 아이하고 놀아주려고 베란다에 있는 자동차 같은 걸 거실로 가져오면 애가 좋아하면서도 엄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래층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큰 자동차 같은 거는 타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으니까 놀아주려고 막 꺼내서 태워주려고 했던 거죠. 집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면서 그냥 자기 하는 대로 하라고... 굉장히 서운했죠 (E씨)

이러한 상황은 참여자 E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아버지들이 자녀의 성장과정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되거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된다면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서는 가족 내 아버지 소외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는 유자녀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상화하는 아버지 역할과 실제 자신의 부성역할 수행경험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 간 갈등과 고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버지들은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상적인 아버지 상과 자신이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성역할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긴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가족중심적인 아버지들은 직장이라는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시간 노동과 경쟁적 사회문화로 인해 상당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시간 근로나 퇴근 이후의 음주문화와 같은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가족생활을 중요시하며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아버지의 역할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남성으로 하여금 가족 의사결정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소외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아버지들은 자신의 바람과는 반대로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맞벌이 여성들이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 역할과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수행에서 오는 이중부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바[10] 맞벌이 남성 또한, 특히 가족중심적인 아버지의 경우, 생계부양자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과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아버지 역할수행에서 오는 부담으로 인해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버지들의 부성실천은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적극적인 부성역할의 실천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동안 보고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9][14] 토대로 지금부터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성연구소(The Fatherhood Institute)는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연구 활동, 정책자문 등을 통해 자녀양육과 부모역할에 대한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관의 운영은 아버지의 가족생활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법과 정책,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기초 작업은 돌봄의 책임을 개인, 가족, 사회가 공유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과 경쟁적 조직문화,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성별 노동 분업에 대한 도전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자녀의 생활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과 조직문화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지식이나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교육현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기본 인프라로 확산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아버지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 미취학자녀나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과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동시에 직장에서의 업무 몰입에 대한 요구도 또한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 상당한 긴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자녀와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청소년기와 같은 특정 시점에서 가족 내에서 소외를 경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직장에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아버지들의 가족생활 참여 욕구에 기반 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실제적인 역할수행 경험은 어떠한지, 그리고 부성실천에 있어서 차이와 변화를 남성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실천 현장에서 취업부나 미혼부 등 다양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아버지들의 성역할의식 변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부모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다. 최근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돌봄 참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1] 김금수(2003). 여성인력에 대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에 관한연구. 기업경영연구, 10(2), 269-289.

[2] 김승권(2004). 2003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4] 김진희(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13-123.

[5] 김혜선(2005). 첫 아버지됨의 체험. 아동학회지, 26(5), 73-87.

[6] 김혜신·김경신 (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17-131.

[7] 김혜영·황정미·선보영·김동기(2008).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 서혜영·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57-280.
[9] 송순·송희옥(2005).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7-208.
[10] 양소남·신창식(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70-103.
[11] 윤홍식(2005).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291-319.
[12] 이명신(1996).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대응전략. 한국사회복지학, 30, 112-138.
[13] 이영석·박은미·허창덕(2008). 아버지의 남성육아휴직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13(1), 25-42.
[14] 이영환(2001).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발달적 결과: 단기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2), 65-76.
[15] 이재인(2010).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한국 대기업 남성들의 경험과 인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19-134.
[16] 이정순(2003a).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3(3), 5-19.
[17] 이정순(2003b).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9-108.
[18] 장수정(2007).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에 대한 쟁점들: 성(gender)과 다양성에 기초한 정책생산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정책, 30, 219-238.
[19] 장수정·송다영·김은지(2009). 일가족 양립 정도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복지학, 61(2), 349-370.
[20] 조용환(2008).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경기: 교육과학사.
[21] 조형숙·김지혜·김태인(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1), 239-264.
[22] 조희금·서지원(2009).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3(1), 61-81.
[23]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http://kostat.go.kr
[24] 통계청(2011). 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kostat.go.kr
[25] 현정환(2004). 아버지의 아동발달의 이해 및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의 비교를 통하여. 수산해양교육연구. 16(2), 171-180.
[26] Bagner, D. M., & Eyberg, S. M.(2010). Father involvement in parent training: When does it matter?.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2(4), 599-605.
[27] Brannen, J., & Nilsen, A.(2006). From fatherhood to fathering: Transmission and change among British fathers in four-generation families, *Sociology*, 40(2), 335-352.
[28] Bryman, A.(2008). *Social research methods*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9] Clark, S. C.(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30] Coltrane, S. Parke, R. D., & Adams, M.(2004). Complexity of father involvement in low-income Mexican American families. *Family Relations*, 53(2), 179-189.
[31] Coltrane, S., & Adames, M.(2001). Men's family work. In R. Hertz & N. L. Marshall (Eds.), *Working families: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hom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72-99.
[32] Denzin, N. K., & Lincoln, Y. S.(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33] Eggebeen, D., Dew, J., & Knoester, C.(2010). Fatherhood and men's lives at middle age. *Journal of Family Issues*, 31(1), 113-130.
[34] Featherstone, B.(2009). *Contemporary fathering: Theory, policy and practice*. Bristol: The Policy Press.
[35] Goldberg, W. A., Tan, E. T., & Thorsen, K. L.(2009). Trends in academic attention to fathers, 1930-2006. *Fathering*, 7(2), 159-179.
[36] Hass, L., & Hwang, C. P.(2009). Is fatherhood

becoming more visible at work? Trends in corporate support for fathers taking parental leave in Sweden. *Fathering*, 7(3), 303-321.

[37] Henwood, K., & Procter, J.(2003). The 'good father': Reading men's accounts of paternal involve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first-time fatherhood.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42(3), 337-355.

[38] Hobson, B.(2002). *Making men into fathers: Men, masculinities and the social politics of fatherh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9] Kimmel, M.(1995). *The politics of manhood.*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40] Lammi-Taskula, J.(2008). Doing fatherhood: Understanding the gendered use of parental leave in Finland. *Fathering*, 6(2), 133-148.

[41] LaRossa, R.(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451-457.

[42] Levine, J. A., & Pittinsky, T. L.(1998). Employment and fatherhood. *Contemporary Psychology*. 43(12), 836-837.

[43]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Sage.

[44] Marsiglio, W., Amato, P., Day, R. D., & Lamb, M. E.(2000). Scholarship on fatherhood in the 1990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173-1191.

[45] McDonald, D. A., & Almeida, D. M.(2004). The interweave of fathers' daily work experiences and fathering behaviors. *Fathering*, 2(3), 235-251.

[46] Miles, M. B., & Huberman, A. M.(1998).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Thousand Oaks: Sage. 179-210.

[47] OECD(2010). *OECD Factbook 2010.* http://www.oecd.org

[48] Palkovitz, R.(2002). Involved fathering and child development: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good fathering. In C. S. Tamis-LeMonda & Cabrer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 119-140). Mahwah, NJ: Laurence Erlbaum Associates.

[49] Palkovitz, R., & Daly, K.(2004). Eyeing the edges: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work and family for fathers in midlife development. *Fathering*, 2(3), 215-233.

[50] Silverman, D.(2001). *Interpreting qualitative data: Methods for analysing talk, text and interaction* (2nd Ed.). London: Sage.

[51] Silverman, D.(2004). Introducing qualitative research, In D. Silverman (ed.). *Qualitative research: theory, method and practice* (2nd Ed.). London: Sage. 1-8.

[52]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Sage.

양 소 남

- 1995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1997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석사)
- 2005년 7월 : 영국 노팅엄대학교 사회사업학과(Ph.D.)
- 2006년 3월~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사회복지실천, 질적연구방법론
- E-Mail : snyang@kgu.ac.kr